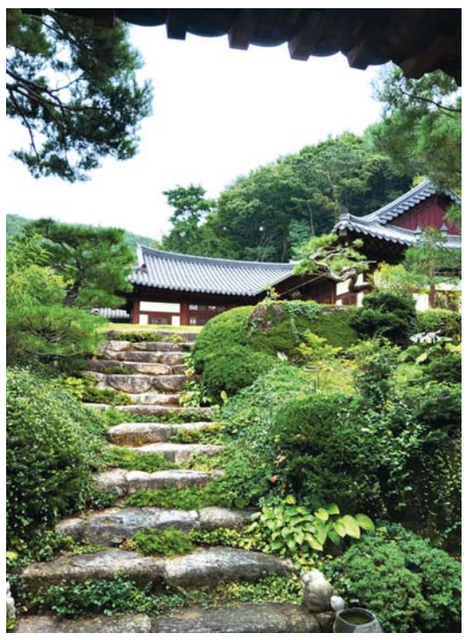
초은 권오춘, K-철학·K-컬처의 정신적 지주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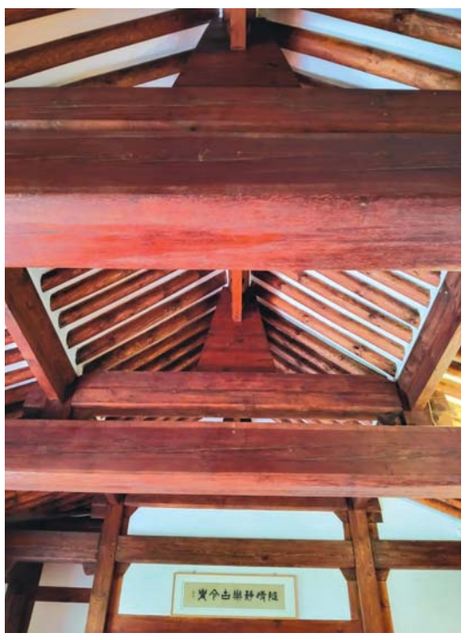
초은당

초은 선생이 선비춤을 추고 있다.

초은 권오춘 선생과 권용만 교수(오른쪽)



대문에서 본 초은당



천장

돌담길

초은당은 초은 권오춘 선생이 숨은 은자를 초빙하기 위해 지은 양평의 큰 기와집이다. 숨은 은자가 누구이길래 대궐같이 큰 기와집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걸까.

초은당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은 문호리인데 실제 위치는 남한강과 북한강 두 강물이 만난다는 양수리(兩水里) 두물머리다. 절묘하다. 마치 누군가가 은거하기 위해 일부러 행정구역을 위장한 듯하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지나 대문 앞에 다가가니 담에 왼쪽에는 초(招), 오른쪽에는 은(隱)이 고개를 내민다. 초은당(招隱堂) 당호다. 마치 당신 은자(隱者)인가라고 묻는 듯이 말이다. 풀을 뽑다 반갑게 맞이하는 초은(招隱) 권오춘(權五春, 부정공파, 35世) 선생이 우리를 기와집으로 안내했다.

마당은 온통 초록이다. 집을 보자마자 와! 하는 탄성과 함께 그야말로 기와집에 감탄한다. 볼수록 멋스럽고 웅장하고 품격이 있다. 놀라운 안목이다.

930평 대지에 본채가 60평이고 잔디밭이 800여평이다. 앉으면 북한강이 보이고 배산임수(背山臨水)로 자연친화적이다. 이런 명당에 인간문화재 최기영 대목장이 설계하고 직접 지었다고 한다. 최기영 대목장은 이음새 하나가 천년을 간다는 장인정신으로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 극락전 등 다수의 국보급문화유산을 복원한 주인공이다.

마루에 들어서면서 또 놀란다. 널찍하다. 기둥이 없다. 기둥을 없애기 위해 캐나다산 대들보 2개를 썼다고 한다. 마루 색깔 또한 범상치 않다. 칠장 중요무형문화재 113호 정수화 선생이 마루와 기둥과 천장 등 집 안팎을 온통 옻칠했다고 한다. 9칸 대청마루는 9번, 기둥은 5번, 천장은 3번, 가구와 장판까지도 모두 옻칠했다고 한다. 초은 선생은 최고의 장인들이 지었다고 흐뭇해한다. 그래서 그 문화적 가치는 1000년은 가지 않을까.

지금도 각종 문화공연과 세미나, 국악 등 문화 활동 장소로 쓰이고 있고, 며칠 전 영국인과 한국인 커플이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영화촬영은 물론 광고촬영으로도 크게 각광 받고 있다고 한다.

초은당을 만나기 전 권오춘 선생은 증권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주변에서는 늘 안동양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일까 45살이 되니 안동권씨로서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갈 길이 뭔가 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남들이 안하는 고전과 한학, 제자백가를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았다. 증권회사는 끊임없는 욕심을 부추겼다. 그 욕심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직장에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난 후 한송 성백효 선생과 조순 전 총리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이제부터 공부다 생각하니 먼저 술을 끊어야 했다. 담배도 끊었다. 바둑과 고스톱, 당구 등 한마디로 주색잡기를 다 끊었다. 골프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끊을 수밖에 없었다. TV, 신문도 다 끊고 공부에 집중했다. 초은당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서재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논어, 맹자 등의 경전과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 옛 문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마루 옆에는 조순 전 총리가 활수서실(活水書室)이라는 휘호 액자를 직접 써서 걸고 자주 머물렀다는 방도 있었다.

안동시 남후면 검암동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명심보감 등 한학을 공부하며 줄줄 외웠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며 봇물 터지듯 막힘이 없다. 초등학교 때 끊어졌던 공부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고 기뻐한다. 한복 입고, 한옥에 살고, 한학을 하고, 국악 등을 줄기차게 하고 있단다. 남이 안 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들이 버리는 한옥을 다시 다듬고 가꾸어 명품 한옥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했다. 일례로 안동에서 광산김씨가 세거하던 집을 인수하여 멋스럽게 꾸며 구담정사(九潭精舍)로 현판을 갈았더니 얼마 전에 명품 한옥으로 지정되었다 한다. 한복을 입으니 식당이든 어디든 금방 알아본다. 명함이 필요 없다. 안동권씨로서 부끄럽지 않게 조상들이 정신적 유산으로 남긴 문집을 연구하고 번역하기 위해 해동경사연구소(海東經史硏究所)도 한송 성백효 선생과 설립하여 주역, 맹자, 시경을 발간했다. 퇴계학진흥회 상임부회장이기도 하고, 전통문화연구회 부이사장과 한재(寒齋) 이목(李穆)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맡고 있다.

초은 선생은 굴원의 어부사(漁父辭)를 막힘없이 술술 읊으며, 여기는 두물머리다 춘천에서 흘러오는 물은 맑다. 굴원이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으며(滄浪之水淸兮창랑지수청혜 可以濯吾纓가이탁오영)" 군자를 믿고 도의정치를 한다. 하지만, 또 다른 한줄기 물은 흙탕물이다. "창랑의 물이 탁하면 내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濁兮창랑지수탁혜 可以濯吾足가이탁오족)" 하는 것처럼 도가 없으니 발 씻고 은거한다. 초은(招隱)이란 호는 숨은 은자들을 초대하여 부족한 점을 보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 옛날 요임금이 은자 허유(許由)에게 천하를 물려주려 하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며 영수에서 귀를 씻는데, 친구 소부(巢父)가 왜 귀를 씻느냐고 묻자 허유가 대답하기를 임금짓 하라는 더러운 소리를 들어 귀를 씻고 있다고 하자 그 더러운 물을 소가 먹으면 안 된다고 소를 상류로 끌고 가서 물을 먹였다는 고사를 들려준다. 새는 앉을 나뭇가지 하나면 돼지 숲까지 가질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초은 선생은 이 시대의 두물머리인 전통과 현대를 온고지신(溫故知新)하고 법고창신(法古創新)해야 한다. 옛것 없이 오늘이 있을 수 없고, 오늘 없이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오늘의 내 몸과 자신의 모든 실존은 과거 부모와 선조가 이룩한 유전자이다. 사상과 철학이 다 그렇다. 옛것이 오늘을 지탱하는 골격이다. 옛 문헌으로 전해지는 역사와 사상과 철학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이다.

초은 선생은 퇴계가 만사에서 "천 번 달군 진귀한 보배 녹이기 어렵고, 백번 정련한 굳센 철 꺾이지 않았다네" 라고 했던 마애(磨崖) 권예(權輗, 21世, 1495~1549) 선생의 후손이다. 또한 관직에 뜻이 없어 세거지에 집 짓고 산택재(山澤齋)라 이름하고 은거한 산택재 권태시(權泰時, 25世, 1635~1719) 선생의 후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천 번 달군 진귀한 보배와 굳센 철 같은 마애 선생을 닮았고, 산택재처럼 은거하는 숨은 은자들을 위해 초은당을 마련한 것은 아닌지.

초은 선생은 마애 선생의 후손답게 안동권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특히 안동권씨는 성인의 성(姓)을 받아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며 득성 유래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시조 태사공은 원래 신라 김씨였는데 후삼국시대 때 후백제 견훤이 신라에 쳐들어와 임금을 시해하고 왕비를 능욕하자 견훤은 의리상 불구대천의 원수라 하여 김선평과 장길을 설득하여 고려 왕건을 도와 대승을 거두게 한다. 이에 왕건이 시조 태사공이 병기달권(炳幾達權)했다고 하여 권씨를 사성(賜姓)한다. 우리 權은 파자(破字)하면 나무 목(木)과 황새 관(雚)으로 구성되어 있고, 황새가 나무 위에 서 있는 형상이다. 황새가 나무 위에 서려면 균형을 맞춰야 한다. 바로 저울처럼 말이다.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이며 수평과 공평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할 때 수(修), 제(齊), 치(治), 평(平)과도 상통한다.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맹자에는 권도(權道)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남녀 사이에 서로 직접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이지만, 형수가 물에 빠졌으면 손으로 잡아 건져주는 것이 권도"("맹자孟子" '이루離婁 상, 17')라고 말한다. 권도는 성인이 행하는 것이다.

한국은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가 됐다. 불과 몇십 년 만이다. G20을 넘어 G7을 넘어 일본 독일도 제쳤다. 방위산업은 미국과 프랑스 한국 순이다. 얼마 전 체코 원자력도 수주했다. 원자력은 1등이다. 바다에 떠 있는 배 중 5만톤 넘는 배는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만들었다. 이뿐인가 반도체, 밧데리, 비행기, 잠수함, 자주포도 세계적 수준이다. 단기간에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여기에 걸맞게 k-컬처, K-철학이 나와야 한다. 전통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초선진국이 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거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용만 교수가 이번 프랑스올림픽에서 칼, 총, 활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다. 여기에 걸맞은 국격과 인격과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하자. 초은 선생은 우리 동이족은 활쏘기를 하면서도 잘못되면 그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다. 활쏘기를 통해 군자의 길을 갔다. 활은 수양이었지 살생이 아니었다. 훈민정음을 봐라. 한글의 원리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다. 세계 최고다. 소리와 풍습과 음식도 마찬가지다. 한글도 표의문자인 한자와 같이 가야 한다. 집을 지으려면 도구가 많이 필요하듯이 한글과 한자를 새의 양 날개처럼 겸용해야 한다. IT시대에도 0과 1 이진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철학과 한국문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정신적 지주이다. 선진국을 모방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한옥에서 30여 년 동안 산 것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

초은 선생은 명인 박경랑 선생한테 선비춤을 배웠다. 춤사위를 부탁하자 의관을 갖춰 입고 부채를 들고 마치 학처럼 춤을 추었다. 어떤 때는 세차게 날아오르고, 어느 순간 휘감아 돌기도 하며, 흥에 겨워 덩실덩실 들썩거렸다.

보통 고전을 공부하는 사람은 고전만 공부하고, 한옥에 사는 사람은 한옥에만 살며, 국악을 하면 국악만 하고, 고전 무용수는 고전 무용만 하는데 초은 선생은 한옥에서 살고 한학을 공부하며 붓글씨를 쓰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선비춤을 추는 등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참선비이자 종합예술인이었다.

초은 선생은 논어를 50번 읽었다. 평범한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가 제일 앞에 있는 이유는 열심히 배워야(學) 하고 반드시 체화해야(習), 즉 지행합일(知行合一)해야 기쁨이 온다(不亦說乎)고 풀이한다.

초은당이 기다리는 은자는 평범한 일상에 꼭꼭 숨어 있는 우리의 뿌리가 아닐까.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아는(溫故知新) 지도자로서(可以爲師矣) 그 뿌리를 불러내어 이 시대의 K-철학, K-컬처로 만들어낼지 초은당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귀추가 주목된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
"안동권문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은 9월 7일 공덕비 제막식이 거행되던 날 지인들 마중을 위해 경주역에 몸소 나와 계셨다. 직접 나오실 줄이야. 깜작 놀랐다. 차에 탑승하자마자 권행완 편집국장에게 공식 행사 때는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맡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통일건국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안동권씨 대종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뜨거운 애족심이 느껴질 정도로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신신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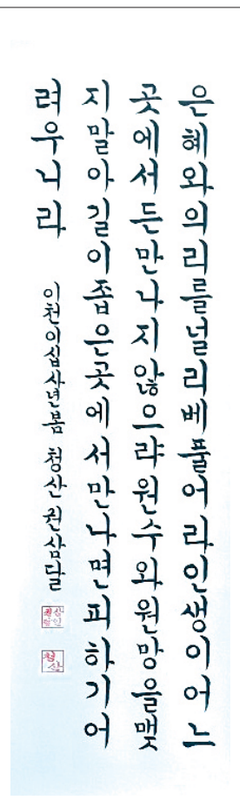
10년 전 2014년에 대한민국 건국회 단체를 맡게 되었다. 1945년 이승만 대통령이 도와서 대한청년단과 애국청년단, 서북청년단 등 10개 애국단체가 결합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이끌어가는 단체로 박헌영 등의 좌익세력과 상대했다. 당시는 근대 경찰이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 무법적 투쟁에 죽고 죽이는 폭동이 비일비재했다. 1948년 5.10 총선, 7.17 제헌헌법, 8.15 건국을 선포했다. 3년 후에 6.25가 발발하여 다시 군대에 들어간 사람도 많았다. 전사자만 17,500여명이었다. 1948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시민단체 수장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해산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1953년 9월 10일 대한청년단이 이승만대통령에 의해 해산되었다. 1961년 5.16 이후 박정희 대통령께 전사자 추모행사와 단체 재건을 건의하여 해산된 지 10년 만인 1963년 12월 23일 과거 전국 청년지도자들이 청우회를 조직, 한국청년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와 정일권 이런 분들이 참여하여 후원해 주었다. 서울 남산 케이블카 자리, 리라초등학교 위에 반공청년 기념비를 건립하여 위패를 안치하고 추모행사도 했다. 그러나 4.19로 인한 이승만 격하운동이 일어나자 후원자들이 이탈하여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그 후 한국청년운동협의회, 건국청년협의회, 대한민국건국회로 명맥이 이어오다 1997년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대한민국 건국회로 법인허가를 받아 발돋움했다. 이후 2017년 02월, "사단법인 대한민국 통일건국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 법인으로 인가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통일건국회에서는 통일세대와 미래세대 청년을 양성해 왔다. 각 대학이 7월에 방학하면 그 첫 번째 주에 국토대장정으로 휴전선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직접 인솔하며 대장정을 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회생 과정이다. 휴전선과 철책이 없어져야 진정한 대한민국이 된다. 이 땅이 거저 이뤄진 것이 없다. 이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그동안 이호 목사가 청년단장을 맡아 이끌어 주었다. 코로나 3년 동안 못했다. 금년부터는 서울대 김헌구 교수가 맡았다.

2017년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단행본이 없다고 하여 대한민국 건국사를 단행본 책자를 발행했다. 건국이 완성된 거냐. 대한민국 영토는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휴전선 이북은 헌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통일의 진행 과정이다. 건국이 완성된 게 아니다. 요즘에는 오물풍선 때문에 행사도 허락하지 않아서 대안으로 학도병 전적지를 교복 입고 찾아다니고 있다. 학도병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안강전투와 장사리 상륙작전, 다부동 전투 등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

안동권문은 신라가 멸망할 때 역사적으로 요구되고 있던 새로운 역할을 시조 태사공이 감당하여 고려 개국공신으로 이어받았다. 안동권문의 DNA와 정신은 임진왜란 때 권율장군으로 나타났다. 권문 청년들도 건국회 청년들처럼 씨족별로는 권문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 선조들의 정신을 따라 닮아 보겠다는 다짐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을 종보를 통해 포부를 밝혀야 한다. 안동권문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조상에 대한 추모 방식도 절하고 제사상 차리고 제사만 지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이 없는지. 안동권문이 유교적 관습이 짙은 건 사실이다. 여기서 머무르면 박제가 된다. 박제되면 안 된다. 바꿔가야 한다. 새로운 것 해봐야 한다. 옛날에 안동에서는 복잔치를 했다. 안동권문만의 특징이었고 권문의 문화였다. 나도 2-3번 참석한 적이 있다. 이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미국 워싱턴 스미스홀 박물관에 가면 한국 안동권씨 족보가 대표적으로 비치되어 있다. 안동권씨 족보가 세계적이라는 얘기다. 족보가 왜 중요하냐 하면 북한에는 성씨와 족보를 말살했다. 공산주의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다. 각 성씨를 공산주의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성씨와 가문의 내력을 자랑하고 부각시켜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김일성 선조 묘소가 전주에 있는데 만약 이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안다면 북한주민들은 남한을 동경할 것이다. 그래서 통일은 선언적이고 통합이 더 중요하다. 통합은 남북을 하나로 어떻게 융화시켜야 하느냐의 문제다. 그게 중요하다. 바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종보를 통해 안동권문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권박사 책임이 크다고 말하며, 안동권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청산 권삼달(權三達, 부정공파 35世) 선생은 서예가이다. 평소 붓글씨를 써서 지역 서예대전에 출품하곤 한다. 출품할 때마다 입선이다. 제3회 경상북도 향교 유림 서예전에 입선, 제21회 울산미술대전 입선, 제23회 울산 눈빛 미술제 붓글씨 한마당 축제 입선, 제십삼, 제십사, 제십오회 영일만 서예 대전에 각각 입선하였다. 족자의 글은 명심보감 계선편(繼善篇)에 있는 恩義 廣施 人生何處 不相逢(은의광시 인생하처 불상봉) 讐怨 莫結 路逢狹處 難回避(수원막결 로봉협처 난회피)를 한글로 풀었다.

"은혜와 의리를 베풀어라. 인생이 어느 곳에서든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망을 맺지 마라. 길이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려우니라."

권행완 편집국장